

광주·전남 공사 7명 국가대표 2차 선발전 통과

안산·최미선·오예진·최민선·기보배·오예진 선발...남자부 이승윤도 18일 창단하는 광주은행 여자양궁팀 최미선 입단...안산은 내년 합류

‘양궁스타’ 안산(광주여대)과 최미선(순천시청)·이승윤(남구청)이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통과했다.

안산은 9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3 양궁 국가대표 2차선발전에서 배점합계 86점을 기록, 강재영(현대모비스·94점)에 이어 2위로 20강에 안착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이자 2022 올해 세계여자 양궁 왕중왕에 오른 안산 등 모든 선수들이 대한민국 양궁 룰에 따라 예외 없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고 있다.

안산은 “항상 ‘처음처럼’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사대에 선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 매년 대표팀 선발전이라는 힘든 여정을 극복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남은 3차 선발전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7일 32명이 가려진 2차선발전에서는 이틀간 역배점을 안고 8강 4개조로 나뉘는 토너먼트와 기록경기를 진행, 남녀 각 20명씩을 선발했다.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83점)은

안산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안산과 최미선은 오는 18일 창단하는 광주은행 여자양궁팀에 입단한다.

최미선은 새 유니폼을 입고 합류하며, 올해 광주여대 4학년인 안산은 입단식을 가진 뒤 내년 졸업 후 합류한다. 최미선은 “장단 멤버이자 만년나리는 책임감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내년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향해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자세로 동계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태극마크 탈환에 나선 최민선(63점), 기보배(이상 광주시청·58점), 오예진(광주여대·55점)는 각각 10위, 11위, 13위에 자리하며 내년 3차선발전에서 출격한다.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쥔 이은경(순천시청)도 5위(71점)로 ‘아시안게임 2연패 도전’을 이어간다.

남자부에서는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이 배점합계 64점으로 11위를 차지하며 내년 3차 선발전에서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이승윤은 “광주 남자양궁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으로 빛고를 양궁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2023 양궁 국가대표 2차선발전 통과한 광주·전남 공사들이 지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 최승실 광주시청 감독, 이승윤, 안산, 오예진, 최민선, 기보배, 최미선, 이은경, 임동일 순천시청 감독, 이현창 남구청 감독.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도전하겠다”며 “항상 든든한 응원군인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남구청 임직원, 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잊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위를 달리던 김우진(정주시청·91점)이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94점)에게 선두를 내주며 2위에 자리했고, 3위는 김제덕(경북일고·89점)에게 돌아갔다.

이들 20명 선발 순위 중 상위 8명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돼 동계훈련을 위해 진천선수촌에 입촌하며 내년 3차선발전을 거쳐 국가대표 남녀 8명씩이 확정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구례군청 엄하진 여자씨름 장사 등극

천하장사씨름대축제 국화급 결승서 최강자 임수정 꺾어

엄하진(구례군청·28·사진)이 위더스제약 2022 천하장사씨름대축제 여자부 장사에 올랐다.

엄하진은 8일 울산 울주군 작전정운동장 씨름 특설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여자 1부 국화급(70kg 이하) 결승전에서 최강자 임수정(영동군청)을 2-1로 물리치고 꽃가마를 뒀다.

엄하진은 ‘위더스제약 2022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거제 대회에 이어 시즌 3관왕에 올랐다.

한편, 양윤서(영동군청), 이다현(거제시청)도

각각 여자부 장사에 올랐다.

양윤서는 같은 날 열린 대회 여자 1부 매화급(60kg 이하) 결승전에서 한유란(거제시청)을 꺾고 개인 통산 18번째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무궁화급(80kg 이하) 이다현은 최희화(안산시청)를 2-0으로 제압하고 황사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여자 2부에선 매화급 노은수(경상남도씨름협회), 국화급 김재민(부산시씨름협회), 무궁화급 양현수(경상북도씨름협회)가 우승했다.

같은 날 열린 대학부 단체전에서는 경기대학교가 전주대학교를 4-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 펜싱 김용을 감독, 국대 총감독 선임 항저우 아시안게임·파리올림픽 지휘봉 잡는다

전남도청 펜싱팀 김용을(60·사진) 감독이 국가대표 총감독으로 선임됐다.

전남펜싱협회(회장 윤영기)는 “대한펜싱협회가 최근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총감독으로 김용을 감독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김 감독은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지휘봉을 잡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 펜싱 국가대표팀 총감독으로 출전해 금메달 12개 가운데 7개를 휩쓸어 한국펜싱 전성기를 이끌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2, 은1, 동3 개를 수확,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장성 출신인 김용을 감독은 1976년 펜싱에 입문(장성 약수중)하여 전남체육고와 한국체육대를 졸업하고, 1984-87년 국가대표선수를 거쳐 1988-89년 전남체육회 우수선수로서 활약하다, 전남공고 펜싱코치(1990년)를 시작으로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김용을 총감독은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등



큰 대회를 앞두고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대표팀 훈련 및 운영 등에 총력을 다해 대한민국 펜싱의 위상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받올테면 받아봐!” 9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세계 여자 테니스 팀 대회 빌리 킨 컵 결승전에서 카자흐스탄의 올리아 푸틴체바가 영국의 케이티 볼터를 상대로 강력한 스매싱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당구 PBA 팀리그 PS 티켓 2장 잡아라

11일부터 후기리그 돌입

프로당구 PBA 팀리그가 포스트시즌(PS) 남은 티켓 두 장을 걸고 후기리그에 돌입한다.

PBA는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2-2023 후기리그인 4라운드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팀리그는 달라진 규정과 함께 전반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했다.

여자복식 도입으로 세트 수가 늘어나면서 무승부가 사라져 몰입감을 높였고, 세트당 득점 수를 줄여 속도감까지 얻었다.

앞서 마무리된 전기 리그(1~3라운드)는 상대

전적까지 따지는 역대급 우승 경쟁 속에 하나카드(1위)와 TS삼푸·푸라담(2위)이 포스트시즌 직행 티켓을 따냈다.

PBA 팀리그 포스트시즌은 전기와 후기 리그 우승·준우승을 차지한 4개 팀이 진출한다.

우승과 준우승팀이 중복될 경우에는 전·후기 리그 통합 성적순으로 포스트시즌 진출팀을 가린다.

PBA 팀리그 최초로 트레이드로 팀을 맞바꾼 임정숙(크라온해태)과 강지은(SK렌터카)의 활약 여부도 후기리그 관심사다.

후기리그는 11일 TS삼푸·푸라담과 크라운해태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블루원리조트와 하나카드, NH농협카드와 웰컴저축은행, SK렌터카와 휴온스의 경기로 이어진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리멤버
2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스마일
3관	자백, 내 친한 친구의 아침식사
4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6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9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첫번째 아이
7관	씨네커플: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자백, 리멤버,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8관	씨네커플: 내 친한 친구의 아침식사, 인생은 아름다워, 블랙 아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회 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2022. 11. 21.(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1 **피노키오**

일시: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613-8246

즐거움 문화산책